

한결같고 안정된, 완전하며 빛나는 별이 되어라.

밥다다는 자녀들 각자를 보면서 자녀 하나하나가 사랑에 몰입되어 있는 현재 단계와 미래의 성취를 보고 기쁘다. 너희는 무엇이었고, 지금은 무엇이 되었으며, 미래에는 무엇이 되겠느냐? 세상과 비교할 때 각 자녀는 특별한 영혼이다. 행운의 별이 각 자녀의 이마에서 빛나고 있다. 끊임없이 행운의 별을 바라보는 훈련을 쌓아라. 이 연습을 계속해서 늘려라. 어디를 보든, 누구를 보든 몸을 보면서도 보지 않는 연습이 자연스러워지게 해라. 너희의 시선이 빛을 발하고 있는 별 쪽으로 항상 쏠려 있게 해라. 너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영적이 되면, 그때는 세계의 눈길이 지구의 반짝이는 별인 너희들에게 쏠릴 것이다. 지금 현재 세상의 영혼들은 여전히 찾고 있다. 뭔가 어떤 힘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과 감정을 그들은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찾고 있으면서도 그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들이 영적인 빛을 받는 것은 오직 바라트에서 뿐이라는 것이 차츰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의 시선은 다른 모든 곳에서 옮겨져 오직 인도에만 쏠려있다. 그러나 바라트의 어디서, 바라트에 있는 누가, 그런 영적인 빛을 주는 도구인지는 아직 분명해지지 않았다. 결국 인도에 있는 누가 다람아트마 영혼이고, 소위 인도의 영적인 영혼들 중에서 누가 지고의 영혼 (파람아트마)인지 찾으려고 모든 이가 다 애쓰고 있다. 그들은,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이 분이 바로 그 분이라는 판단에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누가 옳은 목표와 올바른 목적지를 보여주려느냐? 너희들은 2중의 외국인인 너희가 바로 이 일을 할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쩌서 저 가엽고 무기력한 영혼들이 그토록 많이 배회하게 만들고 있는냐? 그들이 변함없이 반짝이는 별을 보게 너희의 단계를 그렇게 한결같게 만들어라. 반짝이는 너희의 빛은 먼 데서도 보일 필요가 있다. 아직은 오직 너희와 접촉하거나 관계 있는 영혼들만 이 경험을 한다. 이 감정과 파동은 먼 데까지 퍼져야 된다. 따라서 이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너희는 그들이 와서 이것을 경험하도록 그들을 초청해야 한다. 그러나 반짝이는 별인 너희가 해와 달처럼 완전한 단계에 안정해 머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불꽃이 그들을 초대하려고 가지 않아도 나방들이 자연스럽게 등불에 이끌리듯이 어디서든 열망하는 나방들 스스로 그리로 간다. 마찬가지로 배회하면서 찾아다니고 있는 영혼들은 빛나는 별인 너희를 만나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너희에게 자동적으로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 그 영혼들이 아버지에게서 1초에 해방과 삶 속에서의 해방에 대한 권리를 받도록 돕는 봉사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때에 너희들은 공여자 마스터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다. 수석 교사들의 배역이 지금 이때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는 지금 사트구루의 자녀들이 되어 해방과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는 공여자의 배역을 연기해야 한다. 너희는 마스터 사트구루의 형태를 아느냐? 지금 현재는 아버지와 스승의 배역이 특별히 연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는 때때로 자녀인 너희들이 자랑스럽지만, 너희의 짓궂은 장난도 역시 지켜봐야 한다. 스승의 형태로 그는 끊임없이 하나의 가르침을 너희에게 상기시킨다. 해방과 구원의 증명서의 형태로 주어질 마지막 축복은 사트구루의 형태에 의해 1초에 주어질 것이다.

마스터 사트구루의 형태란 완전하게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사트구루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완전하게 따르는 이들이다. 너희들은 이제 실제로 그러한 아버지의 형태를 경험하고 너희들의 형태도 역시 경험할 것이다. 사트구루의 형태란 너희를 완전하게, 그 자신과 대등하게 만들어서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는 분이라는 뜻이다. 사트구루의 형태는 물론이고, 심지어 마스터 사트구루의 형태조차 한순간의 일별로 너희를 저 너머로 데려가는 이다. 너희가 가르쳐주자마자 그들은 해방된다. 이런 이유로 구루가 주는 만트라라는 아주 유명하다. 1초에 만트라를 받으면 그들은 해방을 얻었다고 느낀다! 만트라란 고귀한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영혼들이 해방과 구원의 목적지를 찾았다고 느낄 만큼 그 정도로 강력한 단계를 가지고 너희는 슈리마트를 전할 것이다. 이전 것처럼 강력한 단계를 취해라! 너희 모두 별들이지만, 이제는 한결같고 안정되어 있으며 빛나는 완전한 별로 너희들 스스로를 드러내라. 너희가 뭘 해야 하는지 들었느냐? 이중의 외국인인 너희들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냐? 아니면 너희는 멈췄다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너희가 때로는 구름 뒤에 숨지는 않을 테지? 구름들이 몰려오느냐? 만일 그토록 완전하며 반짝이고 있는 별들이 때때로 구름 뒤에 숨는다면 그럴 경우에는 세상의 영혼들이 그들을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안정해 머물며 태양처럼 끊임없이 빛나겠다고 생각해라. 아차.

2중의 외국인 자녀들 모두와 봉사할 줄 아는 온 사방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대등하며 생각, 말, 행위로 변함없이 아버지를 따르는 자들에게, 한결같이 아버지 가슴의 옥좌에 앉혀져 있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위로자 마스터이며 등대로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길을 보여주는 그런 자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그룹들을 만나심.

나이로비 그룹 : 너희들 모두 경주에서 1등이 아니냐? 1등을 나타내는 표시는 모든 것에서 이기는 것, 즉, 1등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 무엇에도 패배하지 말고 끊임없이 승리해라. 나이로비 주민인 너희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승리하지 않느냐? 나아가는 도중에 너희가 때때로 멈추지는 않을 테지? 멈추는 이유가 무엇이나? 너희가 멈추는

것은 행동수칙이나 원칙을 따르는 데서 때때로 뭔가 틀림없이 오르내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합류시대는 최고로 높은 행동수칙을 따르는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기 위한 때다. 너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최고로 고귀한 존재다. 끊임없이 이를 인식하며 머물러라. 프라자피타 브라마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서 최고로 고귀하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므로 브라마의 자녀인 너희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들은 모두, 가장 고귀한 자녀들이 되지 않았느냐? 이를 의식하며 머뭇머뭇 너희는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단계를 계속할 것이며 저 아래서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는 걸지 않고 끊임없이 저 위에서 계속 날아다닐 텐데 왜냐하면 합류시대는 날아다니는 단계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날아다니는 단계는 다른 어느 시대에도 없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날아다니는 단계의 시대라는 것을 인식해라. 브라민들의 의무는 날아다니고 남들도 날도록 돕는 것이다. 너희들의 본래의 단계는 날아다니는 단계다. 날아다니는 단계를 가진 자들은 1초에 모든 문제를 극복할 것이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 문제들을 극복할 것이다. 저 아래에 있는 어떠한 것도 그들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고, 아무 장애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때는, 히말라야 산맥마저 장애가 되지 못하고 너희는 즐거워하며 산들을 넘어서 날아간다. 마찬가지로 날아다니는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제일 큰 문제들도 아주 쉬워진다.

나이로비는 앞선 번호를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제는 VIP들을 위한 봉사에서도 등수를 차지해라. 그것의 등수는 좋지만 이제 우리는 누가 국제회의에 VIP들을 데려올지 볼 것이다. 이제는 이것에서도 등수를 차지해라. 밥다다는 이제 누가 최고의 VIP를 데려오는지 모든 이들의 경주를 두고 보겠다.

움산티 바반의 새 강당에 걸 그림을 그릴 화가들에게 보내는 밥다다의 신호 .

너희는 그저 화가로서만 그림을 그리느냐,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 단계에 너희들 자신을 안정시키느냐? 어떻게 하느냐? 다른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그저 평범한 그림들을 만들 뿐이다.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무엇이야? 너희가 아버지의 그림을 그릴 때 그것에는 어떤 특별함이 필요하냐? 그림은 삶을 드러내야 한다. 그림 앞에 가자마자 사람들이 그것을 그림으로 경험하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존재를 보고 있는 듯이 경험해야 마땅하다. 어느 경우든 그림의 특성은 비록 그것이 그림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는 데 있다. 상을 받는 것은 이 토대 위에서다. 저 그림들에 그들은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진다. 그러나 영적인 그림의 목적은 그림이 살아있는 정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 즉, 그것이 영성의 경험을 주는 데 있다. 너희는 세속의 화가들이 아니고 독특한 화가들이다. 세상의 화가들은 눈, 외모 등 신체적인 사항들을 볼 테지만, 여기서 너희는 영성의 경험을 주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저희들은 축복을 원합니다.) 축복은 놔두고, 너희들은 축복의 광산에 도달했다! 축복해 달라고 청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권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장소에 도달했다. 너희는 그것들을 유산으로 얻을 수 있는데 왜 그저 몇 가지 축복에 만족하려느냐? 누군가 광산에 들어가서 겨우 한두 줌만 갖고 나온다면 너희는 뭐라 하겠느냐? 아버지가 바로 대양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녀들도 역시 대양의 마스터로 만들지 않겠느냐? 대양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그것은 언제나 가득하다. 앗차.

밥다다가 스웨덴에서 온 그룹을 만나심 .

지각에 믿음을 가진 승리하는 보석이라는 도취감 속에 끊임없이 머물러라. 믿음의 기반은 변함없이 강하다. 너희 스스로와, 아버지, 드라마에 믿음을 갖고 이를 토대로 계속 전진해라. 약점이 아닌, 이 모든 특질을 너희의 앞에 뒤라, 그러면 너희 스스로에 대해 믿음이 생길 것이다. 너희의 약점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행복해하며 계속 전진할 것이다.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아버지가 전능한 권위자이므로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자들은 거의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했다. 설령 너희가 약할지라도 너희의 동반자는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지각에 이 믿음을 갖고 너희가 끊임없이 승리하는 존재라는 의식을 한결같이 유지해라. 과거는 과거다! 그것에 마침표를 찍고 전진해라!

푸네에서 온 하르데비벤이 외국에 나가려고 밥다다께 작별을 고함 .

특별한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너는 이제껏 부양 받아 왔으니 그 부양을 모든 이에게 주어라. 사랑과 평화 두 가지로 모든 이를 부양해라. 모든 이가 다 사랑을 원하고 모든 이가 다 평화를 원한다. 모든 이를 위해서 이 두 가지 선물을 가져가라. 그저 사랑으로 드리시기를 주고 몇 마디 말을 들려줘라, 그러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계속 가까이 올 것이다. 너는 부양 받아 왔으니 그 부양의 화신이 아니냐? 그러니 그 부양의 경험을 남들에게 줘라. 이런저런 주제에 대해 강의할 필요는 없는데, 최고의 것은, “사랑과 평화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러한즉 그들에게 이 두 가지 최고의 것을 줘서 모든 영혼이 다른 어디서도 받아본 적이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경험을 갖게 해라. 사랑이란, 그들이 사랑을 경험하면 이리로 오게끔 자동적으로 끌리는 그런 것이다. 그것은 아주 좋다. 원래의 마하비르가 같 것이다. 사티와 쿤지 (다디들)도 역시 가지 않았느냐? 부양의 화신들이 가고 있다. 아주 좋다. 그들의 혈관 어디에나 아버지의 부양이 녹아 흐르고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사카르 바바와의 관계가 아주 쉽게 형성될 것이다. 그러니 걸거나 움직이는 동안 그들 내면에 녹아 있는 것은 뭐든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그들은 아버지의 부양을 경험할 것이다. 너희는 행복해하며 가도 된다. 너희는 그저 순회여행을 하려고 관광을 목적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는 데 대해서 밥다다는 행복하다. 너희들은 이야기야를 위해 봉사에 뼈까지 내어준 자들이다. 너희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에 봉사가 합쳐져 있고, 이런 이유로 자녀들이 세계를 순회여행 할 때 (봉사하려고 나갈 때) 밥다다는 기쁘다.

모든 자녀들에 대한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이 테이프에 녹음됨 .

사랑에 넋을 잃고 있는 자녀들 모두에게 보내는 사랑과 기억과 더불어 밥다다는 자녀들 모두의 열성과 열의를 보며 행복하다. 밥다다는 사랑과 기억, 그리고 노력하려는 열성과 열의의 편지들과 장애의 파괴자가 되기 위한 편지들을 받아왔다. 장애의 파괴자인 자녀들 모두에게 밥다다는 사랑과 기억을 보내고 있다. 끊임없이 마야의 정복자가 되어 변함없이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라는 의식의 자리에 앉아서, 더블 라이트하며, 날아다니고 남들도 날아다닐 수 있게 해라. 외국인들뿐 아니라 가슴의 옥좌에 앉아 있는 자녀들 모두, 어디에든 모든 곳에 있는 자녀들 모두에게, 마음의 위로자 아버지로부터 넘치는 기억을 보낸다. 옴 산티.

Blessing: 몸 없이 되어 초연한 단계로 “우등 합격” 증명서를 획득해라.

“우등 합격” 증명서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말과 생각, 양쪽 모두의 소리를 초월해 있으면서 평화의 화신 단계에 안정해 머무는 훈련을 쌓을 필요가 있다. 영혼이 평화의 대양 안에 합쳐지게 해라. 너희는 달콤한 침묵의 경험을 즐긴다. 몸과 마음, 양쪽 모두 휴식을 받는다. 마지막에는 오직 몸 없어지는 훈련만이 유익할 것이다. 몸이 놀이를 하고 있을 때는 몸 없이 되어 초연해져서 너희 몸이 맡은 배역을 지켜봐라, 그러면 이 단계가 너희들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Slogan: 모든 미덕들과 모든 힘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순종적이 되어라.

***** 옴 산티 O M S H A N T I *****